



우리꽃 제안

조경 소재로서의 야생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한계와 해법

우리나라 조경시장이 다양한 소재를 사용하게된 주된 요인중의 하나는 80년대 후반부터 불어온 자생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일 것이다. “우리것”을 간파했다는 반성과 함께 근대화 및 도시화의 2세대 어린이시기를 놓친에서 보내고 도시로 이주한 30~40대의 향수가 맞물려 자생식물이 상당한 인기를 얻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 자생식물은 짧은 기간에 공감을 얻기는 했으나 지나친 편협함에 갇혀버리는 문제점을 초래했다.

그런데 우리보다 20여년 앞서 선진 유럽에서는 속근초(Perennials)를 조경 혹은 정원의 기본 테마로 하여 설계, 조성되면서 우리와는 사뭇 다른 양상으로 전개돼 왔다.

이는 우리가 이야기 하는 자생식물, 혹은 우리꽃, 야생화(Wild Flowers of Korea로 표현됨) 등의 단어와는 다르게 정원식물(Garden Flowers, Garden Plants) 혹은 가든속근초(Garden Perennials), 지피 식물(Cover Plants)로 구분되어 사용된다. 즉, 일반적인 야생화(Wild Flowers)의 범위 안에 실지정원기능 중심의 정원용, 조경을 식물로 구분,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실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자생식물, 혹은 우리꽃, 혹은 야생화의 이미지는 조경식물과는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는 분류체계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간혹 방문객으로부터 “우리꽃에 우리꽃이 없군요?”라는 질문을 받는다.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를 잘 알기 때문에 대담 대신 자체 개발한 신품종을 소개하고 있곤 한다. “우리가 개발한 이 꽃은 우리꽃인가요? 남의꽃인가요?” 그리고 정원에 꽃을 심는다면 원종(자생식물)을 심겠느냐, 새로운 신품종을 심겠느냐 하면 80%이상은 신품종을 선택한다. 가격도 원종에 비해 비싼데 말이다.

1. 식물의 선택은 의미론적 접근보다는 경관적 접근이 낫다.

우리는 전세계적 품종이 된 북한산 정향나무를 원종으로 개발한 미스킬리달락의 역수입사체를 접하면서 일본을 토하는 많은 사람과 언론을 접했다. 필자 역시 처음

자생식물(Wild Flowers of Korea)에 대한 식물분류를 전공하면서 많은 울분을 토로했고 많은 실패를 향해 쓴소리를 했던 적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바뀌었는가?

자생식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우리의식물들이 길가 혹은 조경 현장에 많이 이용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고차 전지와 철책, 화양목으로 처리하는 공간에 다양한 식물 소재로 채워지게 한 공은 매우 크다. 하지만 자생식물에 대한 편협스런 인식이 우리의 조경소재와 자생식물의 품종개발에는 오히려 역행한 사례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상당수원장 관리자는 종중 이렇게 지적한다. “잔디나 후덥스 등의 이미 세계적인 조경식물을 심었을 때는 관리가 쉽고 경관연속이 화려한데 야생화를 심었더니 관리도 어려울뿐더러 꽃은 화려하지 않으며 개화기가 짧아졌으니 야생화를 심지 않을 것이다”.

이런 폐해는 반드시 야생화의 성능이 나빠서만은 아니다. 이것은 야생화를 조경에 이용하는데 있어 클로즈업된 꽃만을 적용한 의미론적 접근을 한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주장하는 혼합식제를 하거나 아니면 생태적인 특성을 제대로 고려하여 적용하면 훌륭한 연출도 가능하다. 따라서 야생화 혹은 지피식물(Cover Plants)을 적용할 때는 반드시 경관적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2. 이제 조경식물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옥잠화, 연꽃, 상록패랭이, 사사, 수초류, 수선화, 금계국, 꽃망초, 갈매나무, 감파초, 들꽃, 해메로칼라리스, 원추리, 아이리스, 붓꽃, 세련, 들나물, 나리, 벚꽃 등 우리꽃은 몇 개나 될까요? 원추리와 해메로칼라리스는 어떻게 다를까요? 아니 좀더 쉬운 세련과 들나물은 뭐가 다르죠?

3면 기사 계속



우리꽃이 개발한 논밭은일배



식물의 특성을 이용한 사계



우리의 야생 Iris 식물의 계통문의 작업



우리나라 속근초 대립식물인 사사(학명: 개나리)의 사본



우리꽃이 선보이는 새로운 품종 '전디패랭이'



우리나라 속근초 대립식물인 사사(학명: 개나리)의 사본

Contents			
신년특집 I (신년사)	2면	조경인칼럼	5면
신년특집 II (2004 우리꽃...)	2,3면	우리꽃 홈페이지 개편	7면
신년특집 III (신년메시지)	4면	원종추적	8면

신년특집 I 새해 인사말



우리꽃대표 박경영

유령꽃동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동부를 잇는 동북아 경제권과 중화권을 감지할 수 있으며, 선운산이라고 하는 표현대신 선운산 언제라는 표현으로 하나의 시장임을 상징할 날이 3년 혹은 5년 내 정착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미 중국의 조경소재시장에 유럽의 우수한 품종이 대량 유입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설계와 정책의 추진으로 북경을 비롯한 많은 곳이 매우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유럽의 조경소재회사들이 앞 다퉈서 중국 진출을 시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 3년 혹은 5년 후 우리는 중국의 조경현장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2004' 우리꽃은

안녕하십니까?

세계는 국적 없는 사회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제는 국가간의 개념은 더욱 적어지고 시장권 역을 중심으로 세로

운 질서가 생겨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유령꽃동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미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동부를 잇는 동북아 경제권과 중화권을 감지할 수 있으며, 선운산이라고 하는 표현대신 선운산 언제라는 표현으로 하나의 시장임을 상징할 날이 3년 혹은 5년 내 정착될 것임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이미 중국의 조경소재시장에 유럽의 우수한 품종이 대량 유입되고, 막대한 자금을 동원한 설계와 정책의 추진으로 북경을 비롯한 많은 곳

이 아름다운 도시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때를 같이하여 유럽의 조경소재회사들이 앞 다퉈서 중국 진출을 시도 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 3년 혹은 5년 후 우리는 중국의 조경현장으로 선진지 견학을 해야 할 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큰 시장도 결국은 철저한 이론과 경험을 가진 업체들이 주도하게 되고 한국의 많은 업체도 이 시장에서의 역할을 증대할 것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제야 모두가 변화의 물결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더욱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만이 아름답고 탐스러운 열매를 딸 수 있을 것입니다.

2004년 우리꽃은 소비자들과 함께 할 주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했습니다.

첫째, 세계적인 조경식물소재의 다양화로 조경현

장의 다양성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꽃은 많은 현장과 설계자로부터 조경소재가 반영한다는 것이 가장 큰 애로사항이라는 의견을 청취, 5년 전부터 미리 준비한 소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세계조경소재시장에서 이미 확인된 우수 품목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꽃이 최초로 개발한 우수 품종과 기술을 다양하게 선보일으로써 당분간 오려진 현장과 설계자들의 혼란을 부채질할 정도로 다양하고도 우수한 품종을 대량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고객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연구소 내에 전시포장을 설치하고 매달 월드대회를 개최 소비자들이 이미 완성된 식물의 성상을 관찰하고 확인하여 공사가 진행된 이후 까지도 미리 가능할 수 있는 기능자를 제시하겠습니다. 전시포장

에만 서비스면적으로 2000여 품을 제공, 우수한 신 품종은 물론 일반적인 품종의 관리와 그 특성까지도 미리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온라인을 강화하여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홈페이지를 재편하여 새로운 알찬 다양한 내용으로 소비자 여러분과 바로바로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사진 자료는 물론 정기간행물인 우리꽃뉴스를 바로 검색할 수 있게 하여 제인과 질문 그리고 답변을 드리는 쌍방향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또한 소비자 여러분이 직접 본책이 되어 컬러에 도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안하고, 토론회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의 해결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새롭고 일관 종합카드를 제작하여 소비자장의 업그레이드를 시도하였습니다.

정부가 기두한 종합카드를 3월 이전에 제작, 배포하여 설계자는 물론 현장에서 바로 이용 가능한 내용을 담도록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품 안내카드를 넘어 전반적인 소비자장의 이론과 현장을 소재와 함께 정리 소개함으로써 결과가 예측가능한 조건이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다시한번 배후에 추진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새해의 밝은 햇살이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사회에 비추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A/S 및 B/S 강화

공프장 및 각종 조경현장에서의 공급증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적인 이론과 경험을 갖춘 A/S 및 B/S팀을 강화, 현장방문을 통한 상담은 물론 효과적인 조경현장에 청사진을 제공하고 시공 또는 납품 후에 지속적인 관리 및 기술보급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켜드릴 것입니다.



■ 전시포장 조성과 월드대회

'우리꽃'의 생산? 연구단지인 이전농장이 명실상부한 연구 및 전시 포장으로 거듭났다. 2000여종의 전시포장에 각종 품종들을 전시 재배하여 언제든지 확인하고 설계 혹은 식재할 수 있는 체계화 갖추고 소비자들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면적을 갖출 것이다.

아울러 계절별 월드대회를 열어 조경인과 학계, 생산자들이 이곳 전시포장을 통해 폭넓은 교류를 갖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일년간 이전 농장은 신품종 개발 뿐 만 아니라 300여종에 달하는 주요 품종을 증식, 공급하는 복합기능 역할을 해왔던 채배부터는 품목별 전문 재배포장이 주가 확보에 따라 이것을 개발과 전시장으로 전환할 수 있게 되었다.

육묘, 방제, 정리 등 재배기술 확립에서부터 용도별 품종

1년 기사 계속

물론 설계 담당하는 분도 있었지만 어떤 분들은 감성적으로 아스팔트, 담배향, 헤메로칼리스, 아티스, 세미 등은 우리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은 혹시 우리꽃이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있다. 모두를 뺀다고 모두 맞다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조경용 식물에 있어 '우리꽃'과 '남의 꽃'이라는 화질업에서 이과다. 처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자생식물(야생화) 우리꽃, 자생화 등으로 표현되는 영어의 Wild Flowers of Korea와 조경용 식물(지 피식물, 조경용속근초, 수변, 수중식물 등으로 표현되는 Garden Plants)의 개념을 정리함으로써 좀더 아름답고



원산지인 개화(꽃)를 우리꽃에 의해 잘 관리하여 새로운 우리꽃으로 개발할 수 있다.

규격의 제정, 관련기자제 실시, 그리고 다양한 경관 조성과 적정 소재연출 등 조경관련 토털시장을 조성하고 함께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이곳에서는 계절별로 관련전문가를 초청, 월드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생산과 조경현장, 그리고 고객을 연결하는 디딤돌을 놓을 것이다.



■ '우리꽃' 지방 NETWORK 확대

'우리꽃'은 지난해 새로운 형태의 지사전남을 열어 함께 협력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일년간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평가한 결과 '우리꽃'은 이 같은 협력모형을 더욱 확산하고 협력의 폭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대구와 부산지역에도 NETWORK를 확충함으로써 남부권 NETWORK를 완벽히 계획하며 아울러 업종 간 협력관계도 크게 폭을 넓혀 기존의 강을 외에 광우, 인천 등지의 지역전문조경 업체와 실질적인 Co-Work를 구축할 것이다. 관련 업종은 기존의 생산, 조경에서 조경 관리와 유통·수출로 확대하고, 지역폭도 넓힐 것이다.

■ 전시판매장 개설

조경소재의 전시판매장은 '우리꽃'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이다. '우리꽃'은 이를 위해 그동안 국내 시장환경과 선진국의 실증사례를 조사, 분석해 왔다. 조경소재의 전시판매장이야말로 생산자와 조경인, 그리고 최종



유통업체 조경연출을 가능케 하자는 바램이다. 지나친 의미공방은 반발을 불러올만한 함정이다. 우리의 자생화가 되었든 유럽의 품종화한 식물이 되었든 일반 조경현장에서는 경관 및 생태적인 역할을 더 많이 고려하는 것이다. 이들을 중시하는 이미지가 있어 '우리꽃'과 '남의 꽃'이라는 화질업에서 이과다. 처방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3. 식물소재의 성능과 다양화 조건의 차별화 및 품질을 결정한다.

'우리꽃'에서 개발한 왕상해배행이 시리즈의 꽃 품종은 상록하면서 통질기통 제와하라는 연중 계속적인 꽃을 피운다(2004년 후반기 출시예정). '우리꽃'이 선발육종한 눈꽃은(2002년 출시) 폭발적인 히트(품종)는 포복성의 빠른 성장과 화색이 붉고 단풍이 좋으며 음복 등에 직폭으로 벌어져 밀착이되는 우수한 특성을 가졌다. '우리꽃'이 도입 육성한후(2003년 15종의 품종은 와식과기, 화형이들이 다양하고 흰가무늬에 매우 감미로운 개화기가 길어 이들품종만으로 다양하고 아름다운 화색의 연출이 가능하다.

이들의 성능은 출시 첫해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며

소비자인 고객이 모두 Win-Win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것이 '우리꽃'의 결론이다. '우리꽃'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영역에 도전함으로써 시장성을 분석하고 고객의 Needs를 확인코자 하며, 아울러 시행착오를 통한 노하우를 쌓아 새로운 시장을 열어 가는데 이 모든 것을 공유할 것이다. '우리꽃'과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할 협력업체를 모집한다.

■ 조경자제 정보 제공

'우리꽃'은 많은 현장에서 조경자제의 한계와 불합리한 유통실태를 확인했다. 뛰어난 기능성을 보유한 자재가 시장되는가 하면 다소 엉터리 같은 자재가 사용되기도 하며, 터무니없는 가격에 유통되기도 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식물소재에 잘못 적용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처럼 조경자제시장은 매우 왜곡되어 있으며 몇몇 공급자와 유통업체에 의해 좌우되는 실상이다.

앞으로 '우리꽃'은 홈페이지와 소식지를 통해 차근차근 관련자제 정보를 전달할 것이다. 조경 자제시장의 활성화는 조경시장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게 '우리꽃'의 생각이다.



■ 학계 및 연구기관의 교류 확대 및 교육 강화

무모한 도전이나 정보와 기술의 독점이 아니라 함께 검증하고 발전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이외에 학계 및 연구기관 기술센터 등과 교류를 확대하고 이들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주력할 것이다. 아울러 신품종을 공동으로 개발, 공급하고 신공법을 개발, 확대 적용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우리꽃'의 노하우를 과감히 공개하고 육성소재도 단계별로 분양할 것이다. 나아가 재배농가에 대한 기술교육이나 시장조사 등에 힘을 것이다. 또 학계 및 연구기관의 연구에 필요한 샘플을 공급하고 관련학과의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며, 특히 일반 고객들로 구성된 취미단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조경현장에 적용될 품종들이며 이중 몇 품종은 품종사태를 빚기도 하였다. 이는 조경현장에서의 식물소재의 부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생각된다.

결국 우리조경인들이 우리의 기후와 자연환경 그리고 조경현장에 알맞은 성능과 화려함을 두루 갖춘 우수 품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이용할 때 만이 현장의 다양화와 품질이 보장될 것이라는 게 필자의 생각이다.

예를들어 전원주택의 빛이 잘드는 앞마당 가장자리와 장미의 목련이 심어진 장소에 가장 앞자리에는 일본초나 개질꽃을 식재하고 장미 아래 노출된 표토부분에는 석산이나 수선, 혹은 추사구근을 심고 푸른아래와 가장 자리에는 옥잠과 금낭화 그리고 화분에 심어 묶어둔 꽃병의피리와 구질초를 잘 배열하여 심으면 연중 푸르고 꽃이 있는 정원을 감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야생화와 도입된 우수품종을 적절하게 배열 혼합 식재 함으로써 기대하는 효과를 연중 그리고 계절이 꽃과 함께 바뀌어 감을 느낄 것이다.

이제 조경인이 보는 조경소재 소재의 선택과 적용은 '무엇을 어떻게' 심을 것이냐를 먼저 고민하지 말고 '어떻게 무엇을' 심을 것이냐를 고민하는 단계가 되길 바란다.

2004' 우리꽃 새로운 시작!

■ 생산기지에서 새로운 시장개척기조의 확대

-중국현지농장

중국내 생산기지는 3곳으로 약15만평에 달하며 '우리꽃' 중국현지법인인 '공영화배종자유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약300여종의 야생화 및 초화류 재배, 채종되고 있으며 지금까지는 국내 판매 종자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현재 중국은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하루가 다르게 경제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와 더불어 국가적 차원에서 도시녹화에도 많은 노력으로 이미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이 현실이다. 이에올래는 중국 내 생산기지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준비해왔던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또한 유럽으로의 수출을 위한 전초기지로써 그 역할을 확대하는 등 '우리꽃'의 생산기지 및 새로운 시장개척의 창으로 발바꿈할 것이다.

■ 종자 및 묘종 수출확장

다들 산업과마찬가지로 지파식물 종묘시장도 이제는 해외에 눈을 돌려 점점 수출에 역점을 두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우리꽃'은 현재 미국, 일본 그리고 벨기에 등 각국에 사방종자, 나무종자를 위주로 수출해오고 있다. 앞으로는 우리의 기능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좋은 종자의 적극적인 홍보와 안정적 생산을 통해 종자수출 품목의 다양화 및 증대에 힘쓸 것이다.

요즘 또한 2004년은 중국농장과 국내농장을 통해 다양한 소재개발 및 대량생산을기반으로 유럽 및 일본, 중국 등의 시장진입에 역점을 둘 것이다.

■ 소비민들 신상품 본격 출시

'우리꽃'은 오래전부터 각종 품종의 수집과 개발을 통해서 매년 조금씩 신상품을 선보이며 좋은 반응을 얻어왔다. 각종 실험을 통해 검증된 기능성과 화려함을 갖춘 신상품은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하여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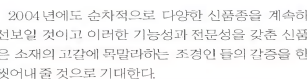
눈꽃은필터



신디배행이



송사배행이 왕상해배행이 시리즈



2004년에도 순차적으로 다양한 신상품을 계속하여 선보일 것이고 이러한 기능성과 전문성을 갖춘 신상품은 소재의 고가에 무관하다는 조경인 들의 감증을 한껏 끌어올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품목별 전문재배포장 확충

붓꽃, 원추리, 옥잠화 등은 유럽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지피식물이기도 하면서 주로 포트재배보다는 분얼로 노지재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우리꽃'은 대량생산을 통한 공급안정과 저렴한 가격의 공급,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러한 품목들을 품목별로 노지전문재배포장을 확정한 계획이다.

신년특집 II

각계 신년메세지



김혜영
국립환경과학원장
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우리꽃’ 이름부터 평범하면서도 다정한 이름입니다. 박경영 사장을 비롯해 그 동료들은 대학교 시절부터 자생식물 동아리를 이끌어가며 우리꽃에 대한 정열을 보여 주었는데, 그 정열이 드디어 꽃피워 지금과 같이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회사를 이루어 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넷뉴스는 항상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2004년에는 ‘우리꽃’과 우리넷뉴스에 더욱 힘찬 발전과 함께 일 하는 분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박석근 농학박사 한국식물원연구소장

2003년의 국내외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부속농장 확보 및 비약적 매출 증대를 이룬 ‘우리꽃’에 우선 친사를 보냅니다. 식물은 품종이 없는 작물(재배식물)이라고 할 수 없으며 새로운 수종의 확보 및 사업 확장에 있어서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나. ‘우리꽃’은 품종 개념이 없는 우리의 자생식물을 조경용 자원으로 개발하는데 있어서, 특히 외국에서 원예품종으로 개발 된 것의 소개 등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도 활약을 기대해 봅니다.



오영철 천연안소속소로

먼 저자 산봉우리 하얀 고갯마루자리에 하루가 또 지고 있습니다. 유난히 비가 많아 모두를 고생했던 한해였는데 그 어려움에도 제2농장개장과 신품종개발에 몰두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또한 갑작스런 방풍에도 많은 도움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2004년에는 ‘우리꽃’의 트레이드마크인 해박한지식과 친절로 더욱 좋은 품종의 꽃으로 만나 보았으면 합니다.



김한채 양지파인플로리스트

개발과 환경조업으로 순수한 우리꽃이 사라져가는 현실에서 야생화를 개발 육성해나가는 ‘우리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꽃’ 식구들은 자연을 닮아서 심성들이 참 따뜻하고 다정한 느낌이 듭니다. 자꾸까지 누구보다도 열심히 우리꽃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 또한 변화 없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야생화를 연구하는 ‘우리꽃’이 더욱더 분발하여 ‘우리꽃’이 활짝일 수 있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임국택 안개종묘 대표

희망에 찬 갑신년 새해를 맞이하여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탐스럽게 얼굴을 드러내보이는 복수꽃처럼 ‘우리꽃’의 힘찬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해는 그 동안 노력되었던 각종 사회, 경제문제가 폭발되어 정신없는 혼란과 위기의 한해였으며 눈앞에 닥쳐왔던 크나큰 경기침체로 인한 가정의고난과 위기 속에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2004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같은 세파에 시달려 메달라지는 우리들의 가슴에 자연을 사랑하고 꽃을 사랑하는 마음의 샘물이 솟아나도록 우리꽃이 우리의 마음을 적셔 주었으면 합니다. 온 들과 산, 우리의 안방까지 우리꽃이 자리 잡는다면힘과 용기 기쁨과 행복이 자질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우리넷 독자여러분의 맥박에 건강과 행운이 자리하길 기원합니다.



이강우 승주골프장

골프장 조경을 담당하는 담당자로서 새로운 소재를 찾기 위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매우 큰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2년 전 ‘우리꽃’과 인연을 맺으면서 새로운 소재와 다양한 아이템을 접하면서 조경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 올해에도 새로운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작년에 방문한 이천농장의 규모에 놀라웠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서 좋은 신품종이 선보이길 바랍니다. 모쪼록 올 한해에도 사업이 번창하길 바라고 계획하신 신품종 전시모집과 필드대회를 기대해봅니다.



김경훈 농학박사 삼성에버랜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003년이 지나가고 2004년이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듯이 새롭다는 것은 우리를 항상 뜰드케 합니다. 그러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는 올해 마무리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의무감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 중 환경복원과 관련된 산업은 점진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들은 시대의 흐름에 적절히 대비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볼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2004년 새해가 밝아옵니다. 환경생태복원사업에 힘써온 ‘우리꽃’의 힘찬 발전과 도약을 기대해 봅니다.



이강우 금주강산대표

작년에 다양한 구경을 조경용 소재로의 접근을 시도하여 좋은 반응을 얻은 걸로 압니다. 올해에도 국내에 더욱더 좋은 구경을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라고, 우리회화시장도 앞으로는 세계시장으로 진출을 위해 다양한 모색을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꽃’도 올해는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해외시장으로의 지파식 수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는 한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박희식 신라골프장

저의 신라골프장에 야생화를 도입하게 된 계기가 ‘우리꽃’과의 인연으로 시작되었고 더 나아가 작년에는 다양한 가능성을 갖춘 지파식들을 이용한 혼합식대를 통해 새로운 조경연출을 시도해 좋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올해에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새로운 조경연출을 기대해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조경인
기획

새로운 조경문화와 조경소재의 활용방안

요즘 우리나라 조경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이 무엇보다 소재 분야일 것이다.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 소재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재료를 찾기 위해 공사기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다반사이며 공급측면에서 보면 다양한 수종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해당과 버려져 되는 수목자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단편적인 예를 들자면 생대 복원 공사지인 단산을 기준으로 그 곳에서 야생되는 수종을 그대로 설계에 반영해 야산굴뚝에 이어져 결과적으로는 생태 파괴를 초래하고 있다. 시선에 정보 수집으로 충분히 설계반영이 가능할 때도 불구하고 단순한 사고로 절감하는 방식 자체는 이젠 탈피해야 한다.

둘째로 시공 측면에서 보면 설계가 아무리 잘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무책임하게 시공해 버리는 사례가 너무나 많다. 설계의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좋은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소양이 겸비된 사람이 현장조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조경공사가 인명 피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현장소장을 아누나 하는



수로 임원택이사

반대측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조경문화가

수 있다는 인식자체를 개선해야 될 것이다. 또한, 소재의 시각적 측면과 부각시켜 식물 본질의 수형은 생각하지 않고 잘 관리된 좋은 수형만을 고집해 공사에 차질을 빚는 경우도 태반이다.

셋째로 생산 관리 부분을 들 수 있다. 살아 있는 소재를 다뤄면서 이용자의 수준이 향상되어 저 높은 조경을 원하는데 반하여에 대한 수종선택, 규격 별 수형 등 재개발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업계는 시장을 스스로 넓혀나가는 셈이라 할 수 있겠다. 이는 운영관리가 전문화 되어야 하며 이용 후 평가에 따라 설계, 시공상의 시행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만전을 가해야 할 것이다. 시공측 관리 부분은 최종 이용자의 질이 높아짐에 따라 생산 관리와는 달리 점차 관리수준이 높아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재 생산 측면을 되짚어 보자. 실제로 정보화의 마력으로 빈번히 유통되어지고 있는 수종과 그렇지 못한 수종의 구분, 소비자가 원하는 수형으로의 변화, 작은 규격에서 큰 규격으로의 변화 등, 세상의 변화만큼이나 조경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 측면에서 보자면 새로운 조경문화가

열리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 것이다. 부가가치를 높이고 능동적으로 변화에 대응하는 것은 조경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몫이라 생각된다.

일년 중 2월 지방을 다니다 나무와 더불어 살고 있다. 우리가 숲이라는 개념으로 볼 때, 산이나 일반화된 조림지에는 여러 가지의 수종이 자연 환경에 따라 각각각색으로 자라 고 있다. 전국적으로 밀집되어 해마다 베어지 고 있어지고 있는 여러 수종들의 나무들을 볼 때 마다 가슴이 저민다.

소재 발굴의 측면에서 각 관청이나 대단지 아파트의 공원 조성시 그러한 나무들의 활용 도가 높아진다며 먼, 멀, 수십 년 간 자라는 조 경자원이 전부 버려지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 이 나무들이 버려지지 않고 활용이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주)수로는 조경용 수목 연구개발 및 유통업체로써 신진 (가) 술을 도입, 조경수목분야를 새롭게 선도하는 자재다. 대표전화: 02-6300-2444, sup@sup.com

기획특집

미리 보는 2004 키워드 - ‘어메니티(Amenity)’

낯설고 포괄적이며 난해하기까지 한 개념이 담겨서 도면서 기업과 사회의 새로운 가치로 발전한다. 그렇다면 새해에는 ‘어메니티’를 주목해 보자.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표한 내용을 발췌. (편집자주)

1. 어메니티란?

어원은 ‘쾌적한’, ‘기쁜’ 감정을 표현하는 라틴어 어 모에니타스(aemontitas) 또는 ‘자랑하다’라는 의미로 가진 라미라(lamara)라고 한다. 즉 어메니티란 사람이 활동하는 생활에서 이르기까지의 폭 넓은 사랑과 장소나 거주 등 쾌적한 환경 그 자체를 의미한다.

2. 도시환경의 악화과 어메니티 부상

우리나라의 도시환경은 세계 주요 도시들에 비하 크게 열악하다. 서울의 경우 인구밀도가 베를린의 4.5배, 뉴욕의 1.8배에 달한다. 1인당 공인면적은 뉴욕, 베를린 등의 20~30% 수준이며, 도서관수는 뉴욕 동정의 10%에 불과하다.

이같은 도시의 팽창은 대규모의 재정규율 개발수요에 대응이 급박하게 하고, 난개발을 초래해 자연녹지권 심각하게 훼손했다. 과도한 건물용 및 밀집, 더없이 부족한 녹지공간, 무질서한 도시경관, 건물 외관 불가 능한 실태로 만들었다.

도시경쟁력의 핵심요소, 어메니티 이런 맥락에서 어메니티는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최근에는 도시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세계 주요 도시들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어메니티 개념을 도입하고,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추진하고 있다.

공해로 악명 높았던 청량도 시 피츠버그가 80년대부터 도시환경을 적극 개선함으로써 현재는 대기업의 본사나 뉴욕 시가코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도시로 변모했다. 싱가포르의 핀치시(Finch)를 슬로시티로 수습시킨 강릉을 정비한 결과 살기 좋은 도시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했다. 반면에 한성기는 도시경쟁력을

환경 지식문화 국제화 키워드로 한 2002 한성기 마스트플랜’을 수립, 추진하고 있다. 북경의 경우에도 수도를 2003년부터 ‘수도’를 이름답게 꾸미는 문화학적 규모인 10대공정(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3. 도시 어메니티의 국내외 사례

현재 도시 어메니티 개선은 크게 ▲편의성 ▲환경성 ▲심미성 ▲문화성 등 4가지 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편의성의 성공 사례로는 완벽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최고 수준의 편리성을 확보한 브라질의 ‘파리파’시가 대표적이다. 지하철 대신 버스와 원형철도 정류장을 결합한 교통시스템을 구축하고 도심지에는 ‘꽃의 거리’라 불리는 보행자 전용도로를 설치했다. 상업의 매출증가와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195년 로마클럽은 세계 12대 보행도시의 하나로 선정했고, UN인간정주 회의에서는 도시발전의 대표적 사례로 뽑았다.

전용도시면 자연과 만나는 도시, 독일 하노버 독일의 하노버는 시의 환경을 추구하여 사민주의명이다. 산업혁명 이후 자연생태계가 급속히 파괴되자 이에 대한 반성으로 인공적으로 생태계를 조성하기 시작했다. 도심의 대규모 공원과 하천을 중심으로 녹지축을 설정하고 외곽의 도시농업(City Farm)도 연결했다. 도시농업에는 시민들이 열대반야 채소류와 화훼류를 기르도록 했으며, 중앙의 숲과 녹지는 라이네강과 연결되도록 해 시민들이 수변공간과 쉽게 접하도록 했다. 이 강 지점의 저수지에는 각종 수생식물과 수생 곤충 야생조류 등이 서식도록 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 녹지공간에서의 활동이 생활의 일부가 되도록 했다.

국내에서는 ‘푸른 도시 바꾸기 사업’을 추진 중인 대구시 사례가 주목된다. 대구시는 ‘96년부터 ‘01년 동안 500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고 ‘06년까지 매년 100만 그루씩 총 1,000만 그루를 심을 계획이다. 대구시장은 문화시민회의와 골목공동체 운동을 전개하며



서 담장을 허물고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이고 서 대구시는 ‘가장 더운 도시’에서 겨울마다 시원한 도시로 바뀌고 있으며, 생활에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다. 서울의 체계적 복원사업, 이 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경관보전을 위한 디자인, 미국 뉴욕 뉴욕은 심미성의 어메니티전략으로 20세기 초부터 지역지구제를 도입, 경관을 관리하고 있다. ‘밀집스퀘어 지구’에는 건물높이의 제한, 아케이드 설치, 광장을 위한 건물용도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5분대 지구’에서는 연결도로와 광장, 그리고 식재를 한 테라스를 대 보행자 공간 등을 조성한다. ‘브루클린 지구’의 우스카이라인, 부부블린다라, 자유의 여신상 등의 구상된 경관을 보전한다.

전경의 폐하에서 문화공간으로 부활, 네덜란드 로테르담 로테르담의 어메니티로는 로테르담이 좋은 사례이다. 이 도는 2차대전 당시 인공의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70년대까지만 해도 추운 겨울에 햇살이 비추는 주도의 도시를 건설했다. 시민들은 효율성만 앞세워 중 건물에 대해 불만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 이후 로테르담은 새로운 도시구조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에 중점을 두기 시작했다. 결국 피터 리치와 같은 문화인은 문화공간을 세웠다. 시 당국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문화적인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었다.



우리꽃은 야생화 모종, 종자납품 및 식재 전문회사입니다.

어떤 현장도 우리와 함께 하면 유리합니다.

가격경쟁력과 완성도, 하자예방 및 처리 등에서
우리는 충분한 경험과 앞선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 ① 소재를 우리가 생산, 가격 경쟁력이 우수합니다.
- ② 식물의 특성과 생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 ③ 완성도가 높고 하자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 ④ 혹 하자가 발생해도 신속하고 완벽하게 처리합니다.
- ⑤ 지속적인 우수 품종과 관리기술이 지원됩니다.

우리꽃은 성원해 주신
고객 여러분께 보답하는
뜻에서 전문소식지를
매달 발행합니다.
지피식물 조경의 노하우를
한단계 올려드립니다.
지금 연락 주세요.



2004 우리꽃 홈페이지 개편

(주소:uriseed.co.kr,uriseed.com,우리꽃.kr)

1.메뉴소개 및 이용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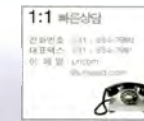


우리꽃 홈페이지 메인 화면

품목소개 중심의 홈페이지 신제품, 게시판 등을 강화한 종합 여행과 피피씨를 종로전문사이트로 확대했습니다.

회사소개, 신제품, 품목소개, 우리넷뉴스, 게시판, 날씨예보 등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메뉴구성했습니다.

[우리넷뉴스]의 자리는 매일 발행하는 오프라인 신문을 인터넷상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종합 매거진 형식으로 꾸미었습니다.



고객센터 신설

모든 회원을 위한 고객센터를 신설했습니다.
검색을 통해서 회원님들이 질문하신 사항의 답변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견적의뢰 및 기타 문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답변을
위해 1:1 서비스도 신설했습니다.



게시판 활성화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게시판이 활성화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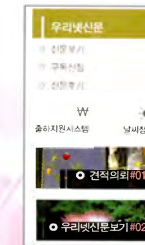
우리꽃의 새로운 소식을 전하는 공지사항 게시판.
정보에 메달라 있는 회원들 위한 전문가 자료실.
회원여러분들의 자유로운 의견이 오고가는 자유게시판.

2.새로이 신설되는 콘텐츠



우리넷뉴스

우리넷뉴스를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토론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신문 후기를 신설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더욱더 알차게 새로운 디자인으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전문가자료실

야생화 및 지피식물을 이용한 조경에서 우리꽃의 KNOW-HOW를 공유하겠습니다.
골프장, 아파트 현장, 식물원, 등의 우리꽃만의 식재현장모습을 담아내겠습니다.
주요 거래처별로 각각의 해답을 제시하겠습니다.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 예정

소량의 주문을 원하는 조경업체와 시군구청, 농업기술센터와 야생화 지피식물에 관심이 많은 일반인들을 위한 인터넷 통신판매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품종과 품목소개에서 보여지는 우리꽃의 1,000여 가지의 야생화 지피식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서 주문할 수 있고 빠른 택배배송으로 고객워주의 쇼핑물을 만들겠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후 회원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2004년 새해 새로운 출발과 동시에 홈페이지를 개편합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새로운 메뉴와 편리한 화면으로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회원들을 위한 주요 콘텐츠를 개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많은 기대와 성원 바랍니다.
(아래 장면들은 베타화면이며 오픈 때 변경될 수 있습니다.)

총집합!
총망라

한 장에 OK! 우리꽃 대형 포스터!!!
'우리꽃' 지피식물의 모든것!
1월초 제작합니다

500여종 지피식물의 특성 및 사진등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예약주문받습니다.
가격:10,000원 (택배비포함)



EVENT

1. 홈페이지 우리넷뉴스 메뉴에 있는 신문후기란에 우리꽃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보고 느낀 점을 적어주시면 야생화 꽃씨봉투 3종1세트를 보내드립니다.

2.회사 방문시 야생화 화분 3개 증정합니다.
(기간:2004년 1월31일 까지)

우리꽃 찾아오는 길



중국 운남성(云南省) 곤명(昆明, Kunming) 식물기행기

박석근(한국식물연구소 소장)

중국의 가장 남쪽 지방인 운남성의 성도인 곤명시를 내가 처음 찾았던 때는 1989년 여름이었다. 곤명은 연중 기온이 섭씨 5도에서 25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봄의 도시라고 불리우며 꽃을 재배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해 중국에서 처음으로 세계원예가협회(AIPE)에서 인정받은 국제원예박람회를 6개월 동안 개최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의 원예 관련 여러 교수님, 연구자 등과 함께 박람회장을 찾았다. 그곳에서 우리나라는 실외정원은 조성하지 못하고 겨우 조그마한 실내관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다. 그나마 상근 안내자도 없어서 더욱 초라했던 경험이었다. 꽃과 조경에 있어서 아직도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후진국 수준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만 4년이 지난 8월 22일에 다시 그곳을 찾았다. 그사이엔 엄청난 대한항공 직행기도 생겨서 2주 만에 운항하고 있었고 중국의 동남항공도 있었다. 인천에서 원요일과 금요일에 떠나네 나날은 금요일 오후 7시 10분에 떠나는 비행기를 이용하여 4시간을 날아서 곤명공항에 도착을 했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시차가 1시간이 나서 우리나라시간으로는 밤 11시였으나 중국 현지 시간으로 10시였다. 시내에 있는 Horizon Hotel에 도착하여 1박을 했다. 중국의 큰 도시는 어디에나 별 다섯 개에 특급 호텔이 많이 들어서 있어 화려한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날 6시 30분에 기장을 하여 호텔 근처를 둘러보았는데 많은 중국인들이 아침제조를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일본과 중국은 어디를 가도 이른 아침에 시민들이 체조로 시작하는 데 우리나라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 어려운 것도 앞으로 고려와 사회로 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 정부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꽃이 있는 공원에서 이른 아침의 산보 또는 제조는 몸과 마음을 모두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아침 식사 후에 차로 약 30분 거리에 있는 두남꽃시장을 갔다. 중국이 아심을 가지고 세계적으로 크게 키우는 꽃시장이었다(사진 1). 경매장의 규모도 세계에서 가장 크게 지어 지닌 5월에 개장하였다! 하나이용로 남부를 아끼겠다는 지역 생산자들의 생각 때문에 경매장이 생각보다 활성화 되어 있지는 못하다고 한다. 그 대신에 아직도 재래시장은 매우 활기차게 보였대(사진 2). 꽃가격을 보니 너무 싸서 도저히 우리나라는 경쟁이 안되는 수준이었다. 카네이션 한단 20송이에 우리돈으로 300원이라고 했다. 판매장에서 한국인이 운영하고 있는 금호종합화훼유한공사(사진 3)를 만났는데, 중국은 요즘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도시의 경관이 나 미관을 고려하여 꽃을 많이 사육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좀더 많은 꽃을 소비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리돈으로 10만원이 안되는 수준에서는 아주 비싼 요금이었다. 입구에서 가이드를 원하면 소수민족 전통의상을 한 아가씨들이 함께 돌아보면서 설명을 해준다(사진 5) 물론 중국어로, 혼자 열심히 카메라를 메고 다니면서 사진을 열심히 찍었다. 입구부터 초화투로 단장하여 시선을 끌 꾸며놓았고(사진 6) 전시문실 안에는 초화투로 만든 꽃밭도 있었고(사진 7) 전체 박람회장을 다닌는 길도 나무와 꽃으로 감싸져 정돈되어 있었다(사진 8). 둘과 어우러진 풍경도 대략다운 연출이었다(사진 9). 이러한 전시회장을 보거나 할 때에 우리나라는 중국에 비하여 아직도 꽃에 있어서는 후진국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외국의 식물원이나 공원 및 꽃박람회장을 갈 때마다 드는 생각은 단순히 GNP만 늘리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요즘 무성하게 성장하고 있는 나라이다. 그러면서도 도시의 경관이 나 미관을 고려하여 꽃을 많이 사육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우리나라도 좀더 많은 꽃을 소비하는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해본다.

돌아보면
우리 농



회사정보

회사명 : 우리꽃

주소 : 경기도 이천시 모기면
송곡리 696

전화번호 : 031)634-7990

팩스번호 : 031)634-7991

홈 : 235109-51-053689

183-12-304270

(예금주:박경영)

謹
賀
新
年

지난해에 베풀어주신 사랑과 관심에 감사드리며
밝아오는 새해에는 풍성한 기쁨속에 뜻깊은 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꽃 임직원 일동



(한해누적금액 : 25만원)

자발적 구독요금에 대한 이해

매달 발간하는 우리꽃은 조경 및 야생화를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취지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폭발적인 반응에 대한
보답과 2000부 가까이 되는 소식지 발행과 우편비용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자발적 구독요금”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였습니다.

자발적 구독요금은?

지정된 계좌에 금액에 상관없이 구독/후원을 하시면

동행 : 235100-56-071562

예금주 : 박경영 (우리꽃 대표 및 소식지 발행인)